

2017년 5월 12일, 성산읍 신천리 신천리경로당, 송정희 조사.
현애자(여, 1943년생, 성산읍 신천리)

- 줄거리: 동네길에서 도깨비가 비질을 해서 갓을 쓴 사람이 사는 집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.

[제보자] 게난, 제사, 제사 먹으렐 가는디, 비도 안 오는 날인디, 한 열두 시 뒤기 전에,
경 헹 가다 보면은, 그갓 쓰곡 헌 사람이 큰 빗자루를 들렁이네 막 그 올레 안
네서 바깟드레 쓸엉 나와렌, 그런 얘기를 허는 거라.
경 헌디, 흐쓸 넘어네 또 오니까 그 집에는이, 풀을이, 남주가 앗아네, 막, 숲없어
렌, 경 허나네 우리신디 허는 얘기가
“느네 앞으로 살멍 보라.”

그 집에 당신이, 그거 본 바로는, 그 집 애가 성공을 안 됐던, 경 얘기허더라고.
경 헨게이 결국에는이, 우리 크기 전에 그 집에 다 망헨게, 두 군데 다.

[청중] 그 집에 도체비가 잊어난 집인게.

[청중] 몰라, 그것도 몰라.

- 핵심어 : 빗자루, 도체비, 갓, 풀, 성공, 올레, 비질, 도깨비